

## 冷戰後 亞太地域의 安保와 經濟構造

編輯者 註 : 다음은 지난 5.22~25까지 싱가포르에서 開催된 第63次 世界肥料協會 ( I F A ) 年次總會에서 말레이시아 말라야大學教 行政學科 Lee poh ping 教授가 發表한 內容임.

議長님 그리고 紳士 淑女여러분 !

本人은 먼저 全世界의 肥料業界에서 活動하시는 著名한 事業家들의 모임인 이 會議에서 演說하게 된것을 크나큰 榮光임을 말씀드립니다. 中國속담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主로 하는 말인데 사람은 재미있는 時代에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時代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亞太地域에 關하여 그리고 不確實한 時代에 우리가 살고 있는 世界에 關해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冷戰이 終熄된 後 永續性이 있는 構造로 아직 代替되지 않은 狀態에서 兩極의 世界構造가 끝났다는 點에서 不確實한 것입니다. 아니면 世界構造는 疑問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冷戰後 亞太地域에는 安保와 經濟構造가 어떤 형태로 떠오를 것인가?

나는 이것이 새로운 世界秩序에 關하여 推測하는 傾向이 있는 學界의 말만 앞세우는 理論家들의 關心의 問題일뿐만 아니라 亞太地域의 經濟的 繁榮 特히 그러한 繁榮

이 維持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實際로 지난 30餘年동안에 이지역의 印象的인 經濟的成長은 (例를 들면 1960년에 世界 GNP의 4%에 不過했던 東亞細亞 및 東南亞細亞는 現在 約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冷戰에 이기려고 고심하였던 美國에 依하여 이룩된 戰略的 經濟的 安定期에 發生했던것입니다. 그러한 安定은 더 以上 當然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이 演說을 통하여 이러한 새構造에 對한 나의 생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歷史로부터 배운 教訓이 이러한 새로운 構造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構造의 複雜性 및 中小勢力의 役割(이지역에서 中間勢力으로 看做되는 ASEAN國家에서 우리가 여기 모였기 때문에 적절한 表現임)이 새로운 構造에 影響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歷史의 教訓 ; 키신저의 解決方式

冷戰後 亞太地域은 유럽歷史에서 일어난 狀況 特히 19世紀 유럽에서 있었던 狀況과 比較되는 것으로 믿는 學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19世紀初 나폴레옹戰爭이 끝난後 유럽은 自由, 平等 및 人類愛와 같은 先驗的인 大義를 促進시키는 유럽의 意志가 고갈되고, 外交政策을 遂行할때 그들의 國益만을 생각하는 나폴레옹以後의 유럽政治家들을 위대하게 보는 傾向이 있었습니다. 兄弟愛에 바탕을 둔 유럽을 創造하기보다는 이러한 政治家들은 國力에 더 關心을 두었고 어떻게 하면 勢力均衡을 維持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學者들의 主張은 오늘날 共產主義나 民主主義와 같은 大義를 떠나가는데 지친 亞太地域에서 큰 勢力이 되었고 이제는 19世紀 유럽에서 있었던것처럼 힘의 均衡을 採擇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더 悲觀的인 것은 現在 여기에 存在하는 不安定한 勢力均衡을 第一次世界大戰

前夜の 유럽에서의 不安定한 勢力均衡과 비슷한것으로 보는것입니다.

나는 유럽의 過去가 亞太의 未來가 될것인지 與否에 關係서는 더 以上 詳細하게 論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比較의 規範的 樣相이라고 稱할 수 있는것을 考慮해서 19世紀에 유럽에서 英國이 했던것처럼 美國은 “均衡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는 政策을 成功的으로 採擇할 것으로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當時 英國의 最大目標은 유럽大陸을 支配하는 強大國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強大國이 그렇게 할 수 있는것으로 判明되면 英國은 다른편을 支援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政策의 主된 主唱者는 헨리킨신저입니다. 이러한 勢力均衡政策을 亞太地域과 其他地域에 適用시킬것을 美國에 促求함에 있어서 키신저는 遂行上 두가지 基本要件을 強調합니다. 첫째로 美國은 集團安保와 人權民主主義 또는 다른 어떤것을 追求한다 하더라도 그 外交政策은 理想에 치우치기보다는 國益을 極大化하는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美國은 亞太地域에서 關聯 強大國들간의 均衡을 찾아야 하며 19世紀 유럽에서의 英國처럼 1個 強國이 亞細亞地域을 支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까닭은 1個國에 依한 亞細亞支配는 戰略的으로 美國에 危險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키신저의 말에 依하면 “하나의 그러한 強國은 經濟的으로 美國을 능가하는 能力을 갖게 되어 窮極的으로는 軍事的으로 美國을 壓倒하게 된다. 그러한 危險性은 비록 그러한 支配強國이 分明히 德行을 行할지라도 저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意圖가 變한다면 美國은 事態를 解決하는 能力이 상당히 줄어든 自身을 發見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바꾸어말하면 美國은 19世紀에 英國이 유럽에서 그랬던것처럼 均衡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萬一 어떤 強大國이나 強大國들의 聯合體가 다른 나라들에 比하여 너무 優勢한것으로 判明되면 美國은 勢力均衡을 回復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다른 나라들에게

무게를 실려주거나 아니면 그 떠오르는 強國의 勢力을 줄이는 措置를 取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美國의 公式的인 政策은 아니지만 이러한 政策이 美國의 많은 重要人士들에게 影響을 미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政策에 影響을 받지 않은 人士로는 부시前大統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國際關係에서 여러나라들이 窺대센 態度를 取하는 傾向을 감안해본다면 그러한 政策의 매력은 理解할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方式에 問題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오늘의 世界는 적어도 戰略的인 側面에서는 19世紀의 유럽보다 經濟的으로 훨씬 더 相互依存的입니다. 예를 들면 美國으로서는 이것은 亞太地域에서 勢力均衡의 지렛대가 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日本과 美國의 經濟的 相關關係를 보십시오. 앞으로 어느날 日本이 勢力均衡을 위협할 程度로 힘이 커진다면 美國은 勢力均衡을 維持하기 위하여 日本을 쓰러트리려고 努力해야 할것입니다. 솟아오르는 日本勢力의 強力한 要因은 그 性格이 經濟的인 것이기 때문에 美國은 自國에 損傷을 입히지 않고 이러한 經濟的 힘을 制御할 수 있을 까요? 도요다와 혼다같은 日本의 自動車가 美國땅에 移植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십시오. 工場들은 日本人 所有이지만 이工場들은 많은 美國사람들을 雇傭하고 있으며 美國의 經濟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습니다. 日本의 經濟的 힘을 줄이려면 美國은 그러한 工場들을 閉鎖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日本만큼이나 美國도 損傷을 입어야만 합니다.

關聯國의 서로 다른 힘을 勘案해 볼때 勢力均衡이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질는지 與否도 또한 疑問이 갑니다. 키신저自身은 均衡의 計算은 매우 複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國際問題에서 經濟力이 점점 重要하게 되기前의 時期에 이 글을 썼습니다. 만일 軍事力의 在來式 計算이 그렇게 복잡했다면 經濟力을 考慮해야만 했을때 어떻

게 그렇게 重要視했습니까? 軍事力의 攻擊의 發展을 막는 日本憲法때문에 당장은 日本이 그러한 軍事力에 置重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周知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은 經濟的 超強大國입니다. 그런데 日本은 軍事力을 使用하지 않고 自體防衛를 爲해서 다른 強大國(美國)에 依支해야 할때 어떻게 勢力均衡에 關聯될 수 있을까요? 強力한 軍事力과 巨大한 核兵器를 保有하고 있지만 經濟的으로는 비틀거리고 있는 러시아를 생각해봅시다. 勢力均衡에 對한 影響力이 日本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四大強國中에서도 中國은 떠오르는 超強國인 反面에 오직 美國만이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힘을 가졌다는 点에서 完全한 超強大國인 것입니다. 美國은 經濟的 軍事的 政治的 領域에서 活動할 수 있지만 日本은 오직 經濟的인 分野에서만 活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단지 軍事的으로만 關心을 가질 수 있습니다. 中國은 軍事的으로 그리고 어느程度까지는 經濟的으로도 活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狀況은 軍事力이 強大國의 定義를 내렸던 19世紀의 유럽에서는 發生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런식으로 近代의 메테니크와 비스마르크는 그들의 생각을 그러한 狀況에서 均衡을 이루는 限度까지 빨치게 될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現代의 메테니크와 비스마르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日本의 指導者들은 그들의 國際的 役割에 對하여 確信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美國 大統領은 國內問題에 더 關心을 두는듯 하고 中國指導者들은 主로 經濟開發과 鄧小平以後의 後繼問題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關聯國家들의 特性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中國은 全世界에 共產主義를 擴散시키는 任務를 基本的으로 포기하였다는 点에서 이제는 革命指向의 國家가 아닙니다. 現在 日本은 어떤 種類의 이데올로기를 分明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福音主義가 아니고 “經濟主義”가 日本의 主된 目標입니다. 따라서 이들 三國은 勢力均衡에 敏感한

傳統的인(비록 러시아는 앞으로 언젠가는 범슬라브主義와 같은 낡은 任務로 되돌아 갈지도 모르지만) 혹은 非이데올로기 國家로 考慮될 수 있을 것입니다. 反面에 美國은 自由를 崇尚하는 國家라는 점에서 다른나라들과는 例外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美國은 本質적으로 그 基本目標로서 全世界에 民主主義와 人權을 擴散시키는 福音主義 國家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冷戰後 美國의 人權 및 民主主義 實踐은 너무 뿌리가 깊어 對外政策施行에 있어서 쉽사리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勢力均衡도 이러한 理想的인 美國傳統에 相衡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勢力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어떤 強大國 特히 美國과 같이 큰 나라는 그 起源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中國이나 러시아가 冷戰기간中에 共產主義와 같은 革命的인 理想을 불어넣음으로써 造成했던 方式으로 勢力均衡 計算에 人權이나 民主主義와 같은 “不合理”한 考慮를 注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클린턴 政府가 中國을 위해서 MFN과 두나라사이에 對話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던 人權을 連關시킨 例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關聯 모든 強大國들의 國益을 考慮해서 許諾되는 그러한 對話없이는 勢力均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勢力均衡의 成功을 위해서는 道德性이 重要視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께 하는 價値에 對한 道德性이며 關聯 強大國들이 게임의 規則에 關하여 同意한 道德性인데 이점에 있어서 美國은 다른나라들이 採擇한 規則에 依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結局 均衡의 論理는 勝利를 거두게 될 것이며 美國이 主張하는 理想的인 方式이 어떤것이든 그것은 窮極적으로 힘의 重要性에 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人權과 民主主義는 “不合理”한 것이 아니고 모든 關聯 強國들의 共通으로 갖게 되는 價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調整은 時間이 걸릴 것입니다.

## ○ 複合的 構造

勢力均衡方式이 滿足스러운것이 되지 못한다면 冷戰後 亞太地域의 構造는 어떤것이 될것인가? 아마도 모든 理論을 受容하는데 適合한 그러한 構造는 아닐것입니다.

첫째로 NATO와 같은 安保機構는 設立되지 않을 듯 합니다. NATO는 朝鮮의 威脅을 共通으로 느끼고 있는 會員國들이 發展시킨것입니다. 더구나 根本的인 政治問題가 NATO會員國들에게 影響을 미치지 않습니다. 嶺土問題가 存在하는 亞太地域에서도 그렇지 아니며(南支那海의 Spratlys, 러시아와 日本間의 北쪽 領土紛爭, 두中國의 충돌等)아직도 克服되지 않은 中日 및 韓日간의 싸움 以前의 日本帝國主義에서 發生된 歷史的인 不信도 있습니다. 冷戰中에도 共產主義에 맞서는 包括的인 亞太安保機構가 없었습니다. 實際로는 美國과 몇몇 亞細亞國家들 사이에 一連의 雙務協定이 있었습니다. 東南亞細亞條約機構 및 五大強國防衛協定과 같은 그 當時에 存在했던 多辯的機構는 어느 特定地域에 限定되었고 亞太地域 外部에서 會員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例를 들면 五大強國中 하나는 英國이었습니다.

유럽연합(EU)과 같은 經濟機構를 능가하는 大陸이 탄생하지 않을듯합니다. 유럽연합은 그 會員國들이 共通의 文化的 背景을 가졌기때문에 成功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富裕한 北部유럽의 國家들과 스페인, 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와 같은 南部유럽의 國家들로 區分되는 南北의 區劃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分割은 共同的 經濟活動을 막을만큼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反面에 亞太地域은 多樣한 文化的 背景을 가진 國家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經濟開發分野에서 差異點이 너무나 큽니다. 유럽연합형태와 같은 그룹을 형성하기는 고사하고라도 그러한 差異는 自由貿易協定에 到達되기 以前에 克服되어야 합니다. 包括的機構設立計劃이 없으면 亞太經濟協力機構 卽

APEC은 어떠한 自由貿易機構가 되기는 遼遠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타날듯 한것은 經濟的 및 安保的인 機能을 가진 二重的인 同盟 및 그룹 형성의 複合的 機構가 될것입니다. 經濟的 側面에서 그룹형성은 세가지 類型으로 分類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超地域그룹형성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本質的으로 그러한 그룹은 相互間의 經濟的 協定을 가진 나라들로 構成되며 한두나라의 經濟的 強國과 交流하는 것입니다. 世界에서 例를 든다면 유럽聯合과 北美自由貿易 協定이 있습니다. 亞太地域에서 이에 對應되는 機構로서는 亞太經濟協定과 東亞細亞 經濟協議會(EAEC)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비록 어느 한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發展된 段階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介意치 않는 國家들의 그룹으로 構成된 것입니다. 그 例로는 타일랜드의 타이바트地帶, 미얀마, 印度支那諸國, 中國의 雲南, 및 ASEAN 自由 貿易協定(AFTA)을 들 수 있습니다. 下部地域그룹형성은 그 세번째가 됩니다. 本質的으로 이 그룹은 州, 省 或은 相互隣接해 있지만 比較될만큼 經濟的 優位에 있는 國家의 一部分으로 構成됩니다. 이지역은 때로는 “自然的인 經濟領域”이라는 것을 形成합니다. 例를 들면 싱가포르, 조호리아우 성장 三角地帶(Sijori), 臺灣, 홍콩,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타일랜드 成長 三角地帶(IMT-GT), 東北아세아의 트멘等입니다. 이들中 많은 나라들은 진척이 되고 있는 反面에 몇몇 지역에 단지 提案段階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형성은 우루과이라운드나 亞太地域에서의 經濟的 活動國과 같은 多邊的 그룹을 代替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두개가 不安하게 共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分明해지는 것은 그러한 그룹의 持續性은 共通의 文化 또는 歷史的 背景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普通 客觀的인 要因은 經濟協力の 方向으로 나가는 傾向이 있는데 그러한 協力は 그러한 나라들이 經濟問題의 管理에 共通의 價値



를 지니고 있거나 前에 함께 일한 經驗이 있으면 훨씬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成功的인 三角地帶中 두 地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成功的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臺灣-南中國 三角地帶는 前者의 境遇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例입니다. 이들 三角地域은 文化的으로 類似할 뿐만 아니라 같은 種族의 起源을 갖고 있으며 歷史的으로 한나라의 一部이었습니다. Sijori는 後者의 例입니다. 싱가포르-조호레-리아무 列島는 19世紀에 빈랑고와 후추 栽培와 貿易에 바탕을 둔 번창하는 地域의 一部이었습니다. 現在의 經濟活動이 商業的인 農業보다는 製造, 觀光等に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事情이 다르기는 하지만 Sijori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不拘하고 도움이 되는 이웃, 外部市場과의 連結, 다른나라와의 去來經驗을 亨有하는 똑같은 要因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成功은 몇몇나라가 말라카海峽 北쪽地域을 포함시키는 歷史的인 貿易連繫를 소생시키려고 하는 IMT-GT입니다.

지역추월 그룹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EAEC는 報道에 依하면 美國의 反對때문에 日本이 加入하기를 주저해서 아직 本軌道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EAEC가 잘 되어나간다면 그것은 솟아오르는 아세아의 自覺속에서 共通의 文化基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東亞細亞와 東南亞細亞는 勿論 유럽보다 더 文化的으로 相異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經濟開發, 西歐사람들이 個人主義에 重點을 두는점과는 다르게 共同地域社會에서 起源되었음을 認識하고 있는점, 合意로 問題點을 解決하려는 정신 등은 많은 東아세아 및 東南亞細亞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共通의 亞細亞 文化 主體性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EAEC가 經濟的 構圖를 追求하는 文化的 그룹형성이 될것이라고 假定한다면 APEC은 共通의 文化를 追求하는 經濟的 機構가 될것입니다. APEC會員國은 實로 多樣한 文化를 가진 나라들로 構成되었는데 그중에서 두가지 主된 뿌리는 西歐文化和 儒敎文化

입니다. 헌팅톤의 말을 믿는다면 두 文化는 適切히 다루지 않으면 敵對인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APEC은 亞太地域에서 國際經濟開發의 緊急事態에 對應하여 經濟的 그룹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共通의 文化的 바탕이 없기 때문에 意味있는 實在物로 오래 持續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몇몇 사람들은 北美의 西海岸, 오스트랄리아의 一部 都市들 및 亞細亞의 東部地域을 포함하는 亞細亞의 그룹이 탄생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美國이 亞細亞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主張합니다. 美國의 前國務部長官 제임스베이커는 7백만명 以上の 美國人이 亞細亞系임을 指摘하고 있는 한편 2名の 作家는 美國은 점차로 亞細亞化되어 가고 있으며 三世紀에 美國은 하나의 國家로 存在하였다고 믿고 있으며 美國은 유럽의 뿌리라는 사실을 否定하고 美國의 將來는 亞細亞와 함께 해야한다고 主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正當性證明은 기껏해야 一部の 사람들만이 믿고 있습니다. 꼭 올바른 假定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美國은 그 西海岸 地域을 이에 포함시키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海岸은 亞細亞의 影響力에 依하여 支配되고 있다고 主張하기까지 합니다. 7백만명이라는 人口는 영향력있는 集團으로 發展될지라도 2억 5천만 人口中에서 7백만은 큰 比率이 아닙니다. 그리고 大部分의 美國人들은 亞細亞化에 저항을 합니다. 또한 西海岸의 一部地域에서 美國의 目標로서 亞細亞化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이것은 속담대로 이리노이스주의 페오리아에서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窮極的으로 APEC을 成功的으로 만들수 있는 것은 亞細亞의 共產社會 精神과 西歐型的 個人主義가 한데 모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實際로 問題가 되는 것은 美國의 亞細亞化나 亞細亞의 美國化냐가 아니고 어떤 制度가 21世紀 社會 或은 國際社會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이러한 制度는 완고한 儒敎형태나 最惡의 狀態에 있는 西洋社會로부터 일고 있는 구속받지 않는 個人主義 形態가 아닐

것임은 점점 分明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兩쪽을 混合한 것이 되어서 個人主義를 위하여 共同社會의 利益을 몽땅 희생하지 않는 民主的인 秩序가 될 것입니다. 東亞細亞 社會는 正義롭지 못한 統治者에 저항하는 傳統없이는 存在하지 않으며 反面에 일찌기 美國은 2억 5천만의 자만심이 가득찬 社會이었습니다. 많은 亞細亞 社會가 民主的인 社會로 轉換하고 있고 많은 美國인들이 協同的인 努力의 必要性을 깨닫고 있다는 事實은 두 社會形態가 하나로 集中될 수 있음을 示唆하는 것입니다.

### ○ 安保 集團

安保機構에 있어서 그것은 雙務協定과 多邊協定에 의하여 이루어진 二重的인 同盟 및 그룹형성으로 構成될 것입니다. 前者의 경우 가장 重要的 것은 美國이 日本 및 大韓民國와 맺은 防衛條約이며 그밖에 싱가포르와 타일랜드와 맺고 있는 防衛協定입니다. 그외로 몇몇 ASEAN나라들이 맺고 있는 相互 雙務的인 防衛協定이 있습니다. 後者는 말레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및 英國이 締結한 五大國防衛協定(FPDA)과 最近에 發進된 ASEAN Regional Forum(FRF), 그리고 特定한 問題를 다루기 위한 公式的이건 非公式的이건 이와 關聯된 會談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例로서는 Spratlys 문제에 관하여 몇년전에 인도네시아가 主催한 非政府會談이 있습니다.

ARF와 같이 多邊的 모임은 아직 그 幼年期에 처해 있으나 FPDA는 말레시아와 싱가포르지역에 限定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美國이 締結한 雙務協定은 아직도 가장 重要的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日本 및 韓國과 맺은 이러한 重大한 雙務條約들은 韓國動亂中에 基本的인 防衛체계를 構築하였습니다. 冷戰이 끝난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條約의 廢棄까지는 要求하지 않지만 이러한 雙務協定의 持續에는 疑問을 提起합니다. 例를 들면 美國人들은 지금은 共同의 敵이 存在하는 故로 그러한

協定の 有效性을 疑問視하고 있으며 낮은 목소리이긴 하지만 왜 美國은 經濟的으로 美國을 威脅할 수도 있는 亞細亞 나라들을 防衛하는데 돈을 써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중에는 亞細亞 국가들이 많지만 亞太地域 安定維持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日本 및 韓國內 美國基地 維持에 所要되는 費用은 當該 國家가 補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現在 하고 있는 것처럼). 더구나 이 地域은 美國의 經濟에 매우 重要하다고 그들은 主張합니다. 美國의 撤收는 特히 그것이 무턱대고 서두르는 철수일 때에는 이 지역의 經濟나 美國의 經濟를 위해서 逆效果를 가져와서 이 지역의 安定을 害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雙務協定은 美國의 利益에도 보탬이 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똑같은 이익이 되며 이 지역에서 美國經濟에 도움이 될 수 있는 親善도 圖謀할 수 있습니다.

贊反이 어떤 것이든 大激變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條約들은 美國이 美國民自身들이 너무 귀찮게 생각되지 않는 寄與를 할 수 있도록 多邊協定으로 차츰 변천되어 계속 維持될 듯합니다.

經濟的 및 安保的 側面에서 이러한 그룹의 分類는 冷戰後 亞太地域 構造의 複雜性을 提示하기는 充分치 않지만 이러한 複雜性은 그들 스스로의 領域內에서 相互作用의 性格때문에 더욱 複合的으로 될 것입니다.

이처럼 經濟的 分野에서 Sijori(말레시아,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小지역 그룹의 會員國은 또한 AFTA와 같은 大그룹의 會員國이기도 합니다. 다른 그룹의 非會員國인 것은 여기에서는 별 상관이 없지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提案된 EAEC는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및 美國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는 非會員자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提案된 EAEC 나라들과의 무역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安保面에서 日本과 美國間의 雙務協定은 이지역에 대단히 큰 影響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지역의 나머지 나라들은 會員國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南亞細亞에서 發生하는 事態는 日本의 安保에 影響을 미치지만 日本은 그지역에서 어떠한 防衛協定 當事國이 아닙니다.

그리고 經濟機構에 影響을 미치는 安保機構 또는 그 反對로, 例를 들어 美日 雙務 防衛協定같은 것은 確實히 이지역의 經濟에 影響을 줄것입니다. 만일 그 協定이 廢棄된다면 APEC은 急激한 影響을 받는 反面에 EAEC는 現實的인 機構가 될것 같습니다. 反對로 APEC이 成功하지 못하거나 或은 EAEC가 成功하면 양쪽 모두 特히 後者の 경우 日本과의 防衛協定에 關하여 美國人들의 思考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 작은 強國의 役割

그렇다면 兩極構造로 가는데 對한 代案은 協調보다는 相衡되는 그룹의 혼란스러운 主義로 나갈수도 있는 여러 그룹中 하나이겠습니까? 그 對答은 Yes와 No.입니다. 國際經濟와 安保는 그러한 複雜性을 쉽게 避할 수 있다는 점에서 Yes입니다. 이러한 모든것은 어느 한 強大國 혹은 強大國들의 集團에 依하여 結合될 수 있다는 점에서 No입니다. 그러한 強大國은 分明히 美國이며 強大國들의 集團은 日本, 中國 및 러시아입니다. 그러나 美國은 亞太地域에서의 役割이 어떤것이냐 하느냐에 關하여 아직 明確한 主張을 밝힐 수 없다는 事實을 勘案해보면, 그리고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美國과 기타 나라들은 아직 勢力均衡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事態는 流動的입니다. 이러한 流動的인 狀態에서 무대는 작은 나라들과 같은 몇몇 다른 國家들로 하여금 經濟的 및 安保的 機構에 影響을 미치는 몇가지 役割을 할 수 있도록 設置되었습

니다.

그러나 安定된 勢力과 같이 流動的인 勢力은 작은 나라들에게는 애매모호한 것입  
니다. 유럽歷史에서 보듯이 安定된 機構는 작은 나라들에게는 甚히 不當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폴란드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및 푸러시아의 強大國들에 依  
하여 分割되었을 때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벨지움은 強大國들이 내버려두기로 合意  
하였기 때문에 獨立을 얻었습니다. (1830년). 反面에 流動的인 狀況에서 서로 수용하  
려고 애쓰는 強大國들은 意圖的이건 非意圖的이건 간에 작은 나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東南亞細亞에서 쓰이고 있는 俗談처럼 코끼리가 싸우거나 짝짓기를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풀들은 밟히게 됩니다. 同時에 流動的인 勢力狀態는 작은 나  
라들로 하여금 策略을 쓰게 할 수 있거나 그리고 어느 程度까지는 構造가 굳혀지기  
전에 영향력을 行使할 수 있는 餘他를 남겨놓기도 합니다.

오늘날 亞太地域은 잘되었건 잘못 되었건 간에 流動的인 狀況에 處해 있습니다.  
危險은 分明합니다. 예를 들면 美日紛爭은 이 지역의 작은 나라들에게 否定的인 結  
果를 가져다주는 조절不可能의 地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美國의 中國에 그  
들의 政治的 影響력을 行使하려는 企圖는 작은 나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험악한 事態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多幸히 그러한 否定的인 事態는 發生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事態發展을 完全히 排除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流動  
的인 事態가 작은 나라들에 依하여 촉발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對答하기 위하여 작은 나라들의 몇가지 定義가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強  
大國의 古典的 概念은 그 性格이 軍事的인 것으로서 軍事力을 國境에서 멀리 配置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를 들면 日本에게는 滿足스럽게  
適用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日本의 實質的인 軍事力에 對하여 同意하지 않을지

도 모릅니다만 現在 日本憲法은 軍事力의 海外派兵을 禁하고 있다는 事實에는 論爭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日本은 經濟的으로 超強大國일지는 모르지만 強大國으로서 이러한 軍事的 定義밑에서는 그러한 資格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大部分의 學者들은 強大國의 單純한 便法으로서 考慮하기를 러시아, 中國, 美國, 日本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地域에서 이러한 四個國에 들지 않는 나라들은 작은 強國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論理的으로 틀린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작은 強國들의 本質的으로 다른 規模때문에 문제는 아직도 작은 強國들이 어떤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排除시킨다는 것입니다. 結局 人口가 적고 陸地로 둘러싸인 라오스는 亞太問題에 있어서 오스트랄리아大陸의 연장에서 발생되는 결과라고 判斷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強國의 嚴密한 定義는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韓國, ASEAN 및 오스트랄리아만 集中시키겠습니다. 資格에 있어서 ASEAN은 다른 두나라와는 달리 國家들의 集團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ASEAN은 國際問題에서 하나의 實在로 活動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다른 두나라와 함께 國際관계에서 行爲者로 區分할 수 있습니다.

이들 三國은 意味있는 役割을 할 수 있는 三個 基準을 充足시키기 때문에 選定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지역에서 다른 작은 強國들과 比較되는 관련 크기입니다. 韓國은 4천만명 以上の 人口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는 1천 8백만명의 大陸이며 ASEAN은 約 3억의 人口를 가졌습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中間 強國이라고 하는 것이 더 適切한 表現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더 重要的 것은 그들의 經濟的 政治的 寄與입니다. 이들 셋 모두는 실질적인 經濟構築이거나 印象的인 經濟力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經濟的인 힘이 漸次 國際社會에서 큰 役割을 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亞太經濟協力機構 卽 APEC의 設立에 관한

오스트랄리아와 韓國이 主導權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서 끝내 APEC이 設立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SEAN 安保會議 卽 ARF를 위한 ASEAN의 提案은 모든 強大國들과 다른 많은 나라들에 依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인도차이나 諸國이나 北韓과 같은 經濟力이 없는 나라들이 提案한 亞太의 經濟的 혹은 安保的 性格의 기구는 그것이 結實되기는 고사하고 상상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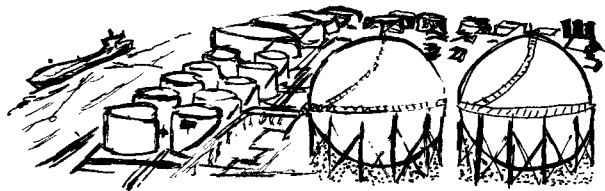
셋째로 이들 셋은 合理的인 統治記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人權과 民主主義에 對한 國際的인 관심을 모았다는 점에서 重要的 것입니다. 오스트랄리아 는 最古의 人權記錄을 가지고 있고 西洋의 定義에 依하면 가장 훌륭한 民主的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反面에 다른 두곳은 비록 그 記錄이 完全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亞太지역 나라들中에서 比較的 人權침해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文明”國에서 除外 될 만큼 그리 쉽사리 천한 나라로 낙인찍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流動的인 勢力狀態에서는 이들 셋은 APEC과 ARF의 設立에서 본바와 같이 APEC이 安保 및 經濟的 構造에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습니다. 確實히 ARF와 같은 安保機構는 存續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結論으로서 그러한 작은 強國들이 取한 어떠한 行動은 強大國의 基本利益에 反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強調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時代를 감안해보면 強大國의 基本的 利益은 그들 나라의 侵入이나 아니면 그들의 經濟에 깊이 손상을 미치는 것과 같은 위협으로서 기본적으로 定義가 내려지고 있는것입니다. 強大國들이 19世紀 유럽의 列強이 그렸던것처럼 勢力을 擴張하기 위하여 멀리 地上軍을 파견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거나 지나갔다고 봅니다. 前유고슬라비아의 경우가 점점 생생하게 들어나고 있듯이 美國과 같은 強大國일지라도 美國人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먼곳까지 地上軍을 파



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캄보디아侵略에 對한 中國의 베트남 “응징”(비록 成功的이진 못했지만)이 보여주는 것처럼 보복을 가져오도록 작은 強國이 列強을 부추겨야 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列強 그 自體는 그들이 바라는 지역安保와 經濟構造에 確信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不確實속에서 特히 現況과 列強의 基本利益사이에 있는 廣大한 領域에서 작은 強國은 若干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PEC과 ARF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나라들은 카드만 올바르게 쓰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끝)



# 海外統計

## 世界各國の磷鑛石生産実績 (1992~1994)

(單位：千吨)

COUNTRIES	'000 TONNES PRODUCT		P/C CHANGE 1994 OVER		'000 TONNES P <sub>2</sub> O <sub>5</sub>		AVERAGE P <sub>2</sub> O <sub>5</sub> CONTENT	
	1992	1993	1994	1993	1992	1993	1994	1994
	ALGERIA	1136.0	730.4	738.3	1.1	345.0	224.8	226.1
AUSTRALIA	1.5	1.7	21.0	1148.7	0.3	0.3	5.0	23.9
BRAZIL	2824.9	3419.3	3937.5	15.2	987.2	1210.8	1386.2	35.2
CHINA	23196.0	22500.0 p	6000.0 e	15.6	5103.1	4950.0	5720.0	22.0
CHRISTMAS ISLAND	190.5	298.0	260.0	-12.8	64.2	100.4	87.1	33.5
COLOMBIA	30.0	55.0	63.0	14.5	8.0	15.0	13.4	21.2
EGYPT	948.3	537.4	631.8	17.6	270.8	153.4	177.9	28.2
FINLAND	554.8	627.6	647.3	3.1	200.8	227.2	235.6	36.4
FSU	20654.0	14480.9	10002.0 a	-30.9	6670.0	4748.8	3509.7	35.1
INDIA	487.8	969.4	1176.5	21.4	129.9	277.0	336.4	28.6
IRAQ	300.0 e	300.0 e	300.0 e	0.0	90.0	90.0	90.0	30.0
ISRAEL	3594.8	3680.0	3960.7	7.6	1116.8	1148.0	1232.2	31.1
JORDAN	4295.8	4128.9	4216.5	2.1	1414.5	1367.1	1399.3	33.2
KOREA DEM. REP.	500.0 e	500.0 e	500.0 e	0.0	165.0	165.0	165.0	33.0
MEXICO	515.2	237.4	532.9	124.5	159.6	72.2	155.6	29.2
MOROCCO	19184.5	18192.5	19764.2	8.6	6060.1	5777.7	6273.6	31.7
NAURU	747.3	633.7	613.2	-3.2	287.7	244.0	233.3	38.0
PAKISTAN	23.7	20.2	21.0	5.1	6.5	5.5	5.9	28.0
PERU	20.0 e	90.0	90.0	0.0	6.1	27.5	27.5	30.5
SENEGAL	2284.0	1688.5	1587.4 b	-6.0	824.9	610.6	575.6	36.3
SOUTH AFRICA	3080.3	2465.8	2545.2	3.2	1169.6	962.0	994.6	39.1
SRI LANKA	32.0	33.0	32.0	-3.0	10.2	9.9	9.6	30.0
SWEDEN	0.0	0.0	0.0	0.0	0.0	0.0	0.0	0.0
SYRIA	1266.0	931.0	1203.0	29.2	389.1	286.3	371.1	30.9
TANZANIA	0.0 e	0.0	0.0 e	0.0	0.0	0.0	0.0	0.0
TOGO	2083.0	1794.3	2149.2	19.8	756.1	651.3	780.2	36.3
TUNISIA	6400.0	5499.9	5698.5	3.6	1910.0	1646.8	1712.4	30.1
TURKEY	65.0	40.0	0.0	-100.0	20.2	12.0	0.0	0.0
U.S.A.	47230.0	35580.7	41554.9 p	16.8	14290.1	10703.6	12445.6	30.0
VENEZUELA	0.0	0.0	11.2	0.0	0.0	0.0	3.0	27.0
VIETNAM	290.0	362.5	469.8	29.6	86.1	110.0	143.9	30.6
ZIMBABWE	127.0	151.0	146.3	-3.1	45.3	53.9	51.9	35.5
WORLD TOTAL	142062.3	119948.8	128873.3	7.4 P/C	42587.5	35850.9	38367.7	29.8 P/C
				1993				1993
				-15.6 P/C				29.9 P/C
				1992				1992
				-4.5 P/C				30.0 P/C

a : for details.

b : in addition 23 400 t. of aluminium phosphate were produced in 1994.

c : estimate

p : preliminary

## 世界各國の磷鑛石等級別生産実績(1994)

(單位：千吨)

COUNTRIES	TOTAL	65 P/C BPL AND UNDER	66-68 P/C BPL	69-72 P/C BPL	73-77 P/C BPL	78 P/C BPL AND OVER
ALGERIA	738.3	425.2	59.0	78.2	175.9	0.0
AUSTRALIA	21.0	21.0	0.0	0.0	0.0	0.0
BRAZIL	3937.5	287.5	0.0	0.0	1572.8	2077.3
CHINA	26000.0 e	26000.0	0.0	0.0	0.0	0.0
CHRISTMAS ISLAND	260.0	0.0	0.0	0.0	260.0	0.0
COLOMBIA	63.0	63.0	0.0	0.0	0.0	0.0
EGYPT	631.8	631.8	0.0	0.0	0.0	0.0
FINLAND	647.3	0.0	0.0	0.0	0.0	647.3
FSU	10002.0	2324.0	0.0	0.0	0.0	7678.0
INDIA	1176.5	478.3	0.0	698.2	0.0	0.0
IRAQ	300.0 e	0.0	300.0	0.0	0.0	0.0
ISRAEL	3960.7	1140.7	0.0	2420.0	400.0	0.0
JORDAN	4216.5	0.0	307.5	697.8	3211.2	0.0
KOREA DEM. REP.	500.0 e	0.0	0.0	500.0	0.0	0.0
MEXICO	532.9	532.9	0.0	0.0	0.0	0.0
MOROCCO	19764.2	2211.6	913.8	12535.0	2627.8	1476.0
NAURU	613.2	0.0	0.0	0.0	0.0	613.2
PAKISTAN	21.0	21.0	0.0	0.0	0.0	0.0
PERU	90.0	0.0	90.0	0.0	0.0	0.0
SENEGAL	1587.4	0.0	0.0	0.0	28.4	1559.0
SOUTH AFRICA	2545.2	0.0	0.0	0.0	0.0	2545.2
SRI LANKA	32.0	0.0	32.0	0.0	0.0	0.0
SWEDEN**	0.0	0.0	0.0	0.0	0.0	0.0
SYRIA	1203.0	691.0	0.0	512.0	0.0	0.0
TANZANIA	0.0 e	0.0	0.0	0.0	0.0	0.0
TOGO	2149.2	0.0	0.0	0.0	0.0	2149.2
TUNISIA	5698.5	260.0	5438.5	0.0	0.0	0.0
TURKEY	0.0	0.0	0.0	0.0	0.0	0.0
U.S.A.	41554.9 p	18606.7	14410.6	5849.8	2687.8	0.0
VENEZUELA	11.2	11.8	0.0	0.0	0.0	0.0
VIETNAM	469.8	91.5	0.0	378.3	0.0	0.0
ZIMBABWE	146.3	0.0	0.0	0.0	146.3	0.0
TOTAL 1994	128873.2	53797.4	21551.4	23669.3	11110.0	18746.2
P/C CHANGE	7.4 P/C	3.1 P/C	38.7 P/C	1.0 P/C	21.2 P/C	-4.5 P/C
TOTAL 1993	119948.8	52188.7	15533.3	23441.9	9166.5	19618.4

e : estimate

p : preliminary

## 世界各國の輸出・入實績(1994)

WORLD EXPORTS BY DESTINATION-ALL GRADE		1994										EXPORTATIONS MONDIALES PAR DESTINATION - TOUS TITRES		
("000 TONNES PRODUCT)		("000 TONNES DE PRODUIT)												
DESTINATION	ALGERIA	EGYPT	FSU	ISRAEL	JORDAN	MOROCCO	SENEGAL	TOGO	TUNISIA	U.S.A.	VARIOUS	TOTAL		
WEST EUROPE														
AUSTRIA	63.2	36.5	0.0	0.0	5.0	82.5	0.0	0.0	3.3	0.0	20.0	210.5		
BELGIUM	7.7	0.0	0.0	0.0	27.5	564.8	0.0	0.0	25.3	258.0	682.3	1566.4		
DENMARK	0.0	0.0	16.2	0.0	0.0	0.0	0.0	0.0	0.0	0.0	50.0	66.2		
FINLAND	0.0	0.0	77.2	0.0	0.0	0.0	0.0	0.0	0.0	0.0	0.0	77.2		
FRANCE	94.3	0.0	0.0	705.0	0.0	253.3	24.7	105.3	161.7	0.0	212.0	1556.3		
GERMANY	0.0	0.0	35.8	24.0	15.0	74.5	0.0	0.0	0.0	113.3	0.0	262.6		
GREECE	110.2	0.0	0.0	31.0	145.2	20.4	0.0	63.9	0.0	0.0	61.0	431.7		
IRELAND	2.6	0.0	0.0	0.0	0.0	7.5	0.0	0.0	0.0	0.0	0.0	10.1		
ITALY	0.0	0.0	0.0	16.0	0.0	181.5	0.0	0.0	0.0	0.0	40.0	237.5		
NETHERLANDS	14.6	0.0	518.0	310.0	393.2	244.4	0.0	0.0	0.0	314.5	62.0	1856.6		
NORWAY	0.0	0.0	345.9	0.0	0.0	22.3	0.0	0.0	0.0	80.7	168.8	617.8		
PORTUGAL	0.0	0.0	0.0	0.0	0.0	25.1	0.0	0.0	28.4	0.0	104.0	157.5		
SPAIN	12.5	0.0	0.0	0.0	0.0	1857.1	0.0	17.0	31.9	0.0	36.3	1954.8		
SWEDEN	0.0	0.0	0.0	0.0	0.0	59.9	0.0	0.0	0.0	0.0	0.0	59.9		
UNITED KINGDOM	0.0	0.0	0.0	0.0	0.0	9.3	0.0	0.0	6.7	0.8	0.0	16.0		
TOTAL	305.1	36.5	993.1	1086.0	585.9	3402.6	24.7	186.1	257.3	767.4	1436.4	9081.1		

WORLD EXPORTS BY DESTINATION-ALL GRADE		EXPORTATIONS MONDIALES PAR DESTINATION - TOUS TITRES										
("000 TONNES PRODUCT)		("000 TONNES DE PRODUIT)										
DESTINATION	ALGERIA	EGYPT	FSU	ISRAEL	JORDAN	MOROCCO	SENEGAL	TOGO	TUNISIA	U.S.A.	VARIOUS	TOTAL
EAST EUROPE												
EULGARIA	0.0	0.0	20.6	0.0	67.2	202.8	0.0	0.0	0.0	0.0	0.0	290.6
EX-CZECHOSLOV	0.0	0.0	17.5	0.0	0.0	5.6	0.0	0.0	0.0	0.0	22.3	45.4
HUNGARY	0.0	0.0	26.1	0.0	0.0	0.0	0.0	0.0	0.0	0.0	0.0	26.1
POLAND	42.9	0.0	154.2	59.0	0.0	669.2	0.0	25.6	550.6	0.0	0.0	1501.5
RUMANIA	153.9	0.0	138.0	124.1	13.4	186.4	0.0	0.0	27.2	0.0	199.0	842.0
EX-YUGOSLAVIA	0.0	0.0	0.0	0.0	83.8	265.4	0.0	0.0	0.0	0.0	0.0	349.2
TOTAL	196.9	0.0	356.4	183.1	164.4	1329.4	0.0	25.6	577.8	0.0	221.3	3054.8
NORTH AMERICA												
CANADA	0.0	0.0	0.0	0.0	0.0	93.8	0.0	847.8	0.0	278.6	0.0	1220.2
U.S.A.	0.0	0.0	0.0	0.0	0.0	1811.3	23.0	0.0	0.0	0.0	0.0	1834.3
TOTAL	0.0	0.0	0.0	0.0	0.0	1905.1	23.0	847.8	0.0	278.6	0.0	3054.5
LATIN AMERICA												
BRAZIL	0.0	0.0	0.0	280.0	0.0	111.3	0.0	0.0	159.5	25.4	0.0	576.2
CHILE	0.0	0.0	0.0	0.0	0.0	8.4	0.0	0.0	0.0	12.7	0.0	21.1
COLOMBIA	0.0	0.0	0.0	0.0	0.0	0.0	16.3	0.0	0.0	36.2	16.0	68.5
COSTA RICA	0.0	0.0	0.0	0.0	0.0	0.0	0.0	0.0	0.0	6.5	0.0	6.5
CUBA	0.0	0.0	0.0	0.0	0.0	0.0	0.0	0.0	5.0	0.0	0.0	5.0

EL SALVADOR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7	0.0	2.7	0.0	2.7
GUATEMALA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	0.0	1.4	0.0	1.4
MEXICO	0.0	0.0	0.0	0.0	0.0	1082.0	0.0	40.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5.0	0.0	65.0	1187.8
PANAMA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5	0.0	4.5	0.0	4.5
PARAGUAY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4	0.0	5.4	0.0	5.4
URUGUAY	0.0	0.0	0.0	0.0	0.0	0.0	0.0	55.7	9.1	0.0	0.0	0.0	0.0	0.0	0.0	0.0	0.0	5.4	0.0	5.4	0.0	70.2
VENEZUELA	0.0	0.0	0.0	0.0	0.0	59.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9.4
TOTAL	0.0	0.0	0.0	280.0	0.0	1261.1	16.3	96.5	173.6	100.3	81.0	2008.8										
AFRICA																						
GHANA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NIGERIA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SOUTH AFRICA	0.0	0.0	0.0	0.0	0.0	0.0	0.0	593.5	0.0	0.0	0.0	59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593.5
TOTAL	0.0	0.0	0.0	0.0	0.0	0.0	0.0	593.7	0.0	0.0	0.0	593.7	0.0	0.0	0.0	0.0	0.0	0.0	0.0	0.0	0.0	593.7
MIDDLE EAST																						
IRAN	0.0	0.0	0.0	0.0	0.0	59.5	169.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9.0
LEBANON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67.0	0.0	267.0	0.0
TURKEY	0.0	0.0	0.0	87.0	229.8	52.5	0.0	0.0	219.7	0.0	0.0	620.0	0.0	0.0	0.0	0.0	0.0	0.0	31.0	0.0	31.0	620.0
TOTAL	0.0	0.0	0.0	87.0	229.8	112.0	169.5	0.0	219.7	0.0	0.0	1116.0	0.0	0.0	0.0	0.0	0.0	0.0	298.0	0.0	298.0	1116.0

WORLD EXPORTS BY DESTINATION-ALL GRADE 1994 EXPORTATIONS MONDIALES PAR DESTINATION - TOUS TITRES

("000 TONNES PRODUCT) ("000 TONNES DE PRODUIT)

DESTINATION	ALGERIA	EGYPT	FSU	ISRAEL	JORDAN	MOROCCO	SENEGAL	TOGO	TUNISIA	U.S.A.	VARIOUS	TOTAL
ASIA												
BANGLADESH	0.0	0.0	0.0	0.0	72.0	0.0	0.0	0.0	0.0	0.0	90.6	162.6
INDIA	0.0	36.0	0.0	507.0	1008.0	389.3	159.7	87.7	21.0	285.1	43.0	2536.8
INDONESIA	44.6	14.8	0.0	0.0	622.8	397.8	0.0	0.0	36.2	0.0	37.2	1153.3
JAPAN	0.0	0.0	0.0	35.0	164.2	46.6	22.6	0.0	0.0	511.8	377.3	1157.5
KOREA REP. OF	0.0	0.0	0.0	24.4	104.9	252.1	16.5	0.0	0.0	977.8	256.1	2631.8
MALAYSIA	0.0	0.0	0.0	0.0	87.2	0.0	0.0	0.0	0.0	11.8	209.0	308.1
PAKISTAN	0.0	0.0	0.0	0.0	155.0	96.5	0.0	0.0	0.0	0.0	0.0	251.5
PHILIPPINES	0.0	0.0	0.0	55.7	0.0	0.0	215.2	285.0	0.0	0.0	0.0	555.9
SRI LANKA	0.0	4.5	0.0	0.0	0.0	0.0	0.0	0.0	0.0	0.0	2.0	6.5
TAIWAN, CHINA	0.0	0.0	0.0	52.0	231.6	33.0	0.0	0.0	0.0	0.0	5.2	321.8
OTHERS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7.2	247.2
TOTAL	44.6	55.3	0.0	674.1	2445.7	1215.3	414.0	372.6	57.2	1786.5	1267.6	8332.9
SOCIALIST ASIA												
KOREA DEM. REP.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9	40.9
TOTAL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9	40.9

OCEANIA												
AUSTRALIA	0.0	0.0	0.0	12.2	341.3	168.6	0.0	111.4	0.0	187.2	229.3	1050.0
NEW ZEALAND	0.0	22.0	0.0	60.6	58.0	132.7	0.0	0.0	22.5	181.9	368.0	845.7
OTHERS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20.0	20.0
TOTAL	0.0	22.0	0.0	72.8	399.3	301.3	0.0	111.4	22.5	369.1	617.3	1915.7
VARIOUS												
OTHERS	28.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4	31.4
TOTAL	28.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4	31.4
TOTAL 1994	574.6	113.8	1349.6	2383.0	2825.0	9526.8	647.5	2233.8	1308.1	3301.8	3965.0	29229.8
P/C CHANGE	27.9	-15.3	11.3	13.7	7.3	13.4	-34.1	42.5	17.5	-8.1	9.0	9.3
TOTAL 1993	449.3	134.4	1212.4	2095.3	3565.0	8398.4	982.8	1567.4	1113.5	3592.6	3637.0	26748.0
TOTAL 1992	799.6	179.9	1080.4	1953.7	4263.9	9132.1	1186.6	2085.5	956.1	4034.5	3846.3	29518.6



○日本の 암모니아 需給實績('94肥 7~3月)

品 目		'94 肥 3 月	前 年 同 月 比 %	'94肥累計 ( '94. 7~3)	前 年 比 %	
受 入	移 越 在 庫	76,921		64,166		
	生 産	157,546	117.2	1,392,120	106.1	
	融 通 受 入	4,488	80.9	77,615	113.7	
	計	238,955		1,533,901		
消 費	肥料用直接原料用(A)	10,693	144.9	137,581	99.3	
	工 業	암모니아製品原料用	45,617	107.2	391,724	106.5
		其他自家用	73,613	127.1	642,839	109.5
		自家用計	119,230	118.7	1,034,563	108.4
	用	國內出荷	33,628	104.5	286,047	105.9
		輸 出				
	販 賣 計	33,628	104.5	286,047	105.9	
	工業用投入(B)	152,858	115.3	1,320,610	107.8	
計 (A) + (B)	163,551	116.8	1,458,191	106.9		
로 즈	16		322			
月 末 在 庫	75,388	100.7	75,388	100.7		

〈註〉…單位：NH<sub>3</sub>吨

○日本の窒素需給実績('94肥7~3月)

		3 月		7 ~ 3 月	
		數 量	前 年 比	數 量	前 年 比
移 越 在 庫		109,503	105.2	69,899	84.6
		104,121		82,666	
生 産		56,283	114.5	564,486	106.7
		49,171		528,963	
内 需	肥 料 用	16,175	107.7	112,953	116.1
		15,018		97,275	
	高 化 用	1,276	35.9	9,591	32.4
		3,551		29,616	
工 業 用	49,270	102.3	409,721	106.2	
	48,177		385,967		
計		66,721	100.0	532,265	103.8
		66,746		512,858	
輸 出	肥 料 用	1,033	6456.3	4,088	72.5
		16		5,641	
	工 業 用	0	-	0	0.0
0		6,600			
計		1,033	6456.3	4,088	33.4
		16		12,241	
需 要 計		67,754	101.5	536,353	102.1
		56,762		525,099	
在 庫		98,032	113.3	98,032	113.3
		86,530		86,530	

〈註〉…單位：屯・%，下段は 前年実績

○日本の黄酸암모늄 需給実績('94肥7~3月)

		3 月		7 ~ 3 月		
		數 量	前 年 比	數 量	前 年 比	
移 越 在 庫		183,836	97.4	139,202	79.8	
		188,717	-	174,451	-	
生 産		150,420	106.5	1,322,884	104.4	
		141,206	-	1,267,272	-	
内 需	肥 料 用	80,696	99.6	604,919	110.2	
		81,039	-	548,995	-	
	高 化 用	4,251	43.4	32,174	39.4	
		9,802	-	81,729	-	
	工 業 用	5,618	116.9	39,978	101.7	
		4,807	-	39,295	-	
	計		90,565	94.7	677,071	101.1
			95,648	-	670,019	-
輸 出	肥 料 用	70,214	94.5	610,555	100.0	
		74,300	-	610,624	-	
	工 業 用	333	172.5	1,316	101.4	
		193	-	1,298	-	
	計		70,547	94.7	611,871	100.0
			74,493	-	611,922	-
需 要 計		161,112	94.7	1,288,942	100.5	
		170,141	-	1,281,941	-	
在 庫		173,144	108.4	173,144	108.4	
		159,782	-	159,782	-	

〈註〉…單位：屯・%，下段은 前年実績

○日本の熔成磷肥需給実績('94肥7~4月)

項 目	7 ~ 4月(屯)	前年同期(屯)	前年比(%)
移 越	86,117	93,064	93
生 産	163,961	174,523	94
単 肥	125,001	138,267	90
外 販	24,658	27,513	90
自 社	28,051	24,413	115
原 料 計	52,709	51,926	102
其 他	(-) 2,016	(-) 1,075	-
内 需 計	175,694	189,118	93
輸 出	40	60	67
在 庫	74,344	78,409	95

▷ 流通別

全 農	120,441	133,131	90
商 社	4,375	4,864	90
開 拓	185	274	68

○日本の加里需給実績('94肥 7-2月)

		'94肥 2月	前年比	'94肥 7~2月	前年比	
鹽	移 越	77,890	73.4	70,203	91.2	
	輸 入	46,318	204.1	257,156	100.3	
化	内	單 肥	2,036	106.5	11,052	91.4
		複 合 原 料	31,977	107.8	203,378	100.2
	需	小 計	34,013	107.7	214,430	99.8
		國産黃加用	3,121	114.2	24,174	116.7
	計	37,134	108.2	238,604	101.2	
里	輸 出	229	77.1	1,910	54.4	
	在 庫	86,845	92.2	86,845	92.2	
黃	移 越	輸 入	31,899	113.7	31,089	101.9
		生 産	15,648	142.7	65,488	92.1
	酸	計	3,552	131.5	24,711	119.4
			51,099	122.5	121,288	99.2
加	内	單 肥	902	146.0	5,881	87.3
		複 合 原 料	9,609	115.5	74,820	90.4
	需	計	10,511	117.6	80,701	90.1
里	輸 出	0	-	0	-	
	在 庫	40,589	123.8	40,588	123.8	

		'94肥 2月	前年比	'94肥 7~2月	前年比
輸 入 化 成	移 越	584	41.4	423	18.8
	輸 入	1,070	221.5	3,535	73.5
	內 需	182	33.9	2,486	43.5
	在 庫	1,472	108.6	1,472	108.6
加 里 肥 料 合 計	移 越	110,373	81.4	101,715	92.7
	輸 入	59,915	190.8	302,005	96.9
	生 産	3,552	131.5	24,711	119.4
	計	173,840	102.4	428,431	96.9
	內 需				
	單 肥	2,938	116.1	16,933	89.9
	0,複合肥料	41,586	109.5	278,198	97.4
	輸入化成分	182	33.9	2,486	43.5
	計	44,706	108.9	297,617	95.9
	(國産黃加用)	(3,121)	114.2	(24,174)	116.7
	輸 出	229	77.1	1,910	54.4
	在 庫	128,906	100.4	128,905	100.4

〈註〉…①單位：K<sub>2</sub>O屯・%，②純分量은 鹽加的 實數 0.6，黃加的 實數에 0.5를 乘하여 算出，③合計欄의 輸入은 國産黃酸加里原料用을 除外，④農水省集計